

거래·매매가 ↑...봄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 중심 거래 늘어 광주 매매가 한달새 0.22% 상승 두달간 거래 광주 전년비 3.4%·전남 1.6%↑...공급도 증가

광주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매매가격, 분양 여건 등 부동산 지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성수기인 이사철을 맞아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분양·임대 공급도 활기를 띠면서 지역 주택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지표는 개선=주택 매매가격, 거래량, 분양경기실사지수, 입주경기실사지수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부동산 지표는 호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국토부의 주택매매거래량 조사 결과, 지난 1~2월 광주지역 주택 거래량은 529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전남도 올 들어 2개월간 4287건이 거래되면서 작년 같은기간에 견줘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거래 신고가 계약일 60일 이내에 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거래가 늘어난 현상이 반영됐다는 게 주택업계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비슷한 상승세를 엿볼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달에 비해 0.16% 올랐고 전남은 0.20% 상승했다. 지난달 전세가격도 전남지역은 0.13%, 광주는 0.01% 오르는 등 거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12월을 기준으로 전월에 견줘 0.07% 오른 뒤 0.02%(2월 19일)→0.15%(2월26일)→0.04%(3월5일)→0.05%(3월 12일) 등 상승 폭은 크지 않지만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 같은 기간 0.05%~0.02%를 유지하며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지표에 반영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측 분석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월 주택 매매가격 동향에서도

광주는 전달보다 주택매매가격이 0.22% 올랐다. 건설사들의 채감 분양 경기도 나쁘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놓은 3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Housing Sales Survey Index) 조사 결과, 광주의 분양경기 전담치는 80.8로 지난달에 견줘 25.9포인트 상승했고 전남도 71.4로 전달 전담치(69.6)보다 다소 올랐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달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사철과 봄 성수기를 맞아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점쳐볼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일만하다.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입주경기실사지수'(HOSI·Housing Occupancy Survey Index) 전담치도 이달 광주는 86.4로 전달(72.7) 대비 올랐다.

▷입주·분양 잇따라=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건설사들의 주택 분양·공급도 여기에 맞춰 진행되는 추세다. 특히 지역 경기집체를 반영하듯 대형을 제외한 임대·중형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당장, LH는 이달, 하남(300가구)지구와 진월(460가구)지구에 들어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하남지구의 경우 대학·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전용면적 16~26㎡ 규모의 행복주택이 222가구 공급되고 진월지구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전용면적 36㎡) 224가구 입주자 모집을 3월 실시한다.

민간 건설사들도 입주자 모집에 나서 첨단 진아리에는 지난 1월 750세대 분양을 마쳤고 목포에서는 8년간 임대해 거주할 입주자(416세대·대광로제비암) 모집에 들어갔다. 동림 3지구에서도 민간 아파트(한국아파트리움·280세대)가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달에도 광주에서는 동구 계림 2차 두산위브 648가구를 포함해 79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역 주택업계는 이사철을 맞아 갈아타기 수요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85.52 (+10.49)
- ↑ 금리 (국고채 3년) 2.29% (+0.01)
- ↑ 코스닥 890.49 (+9.43)
- ↓ 환율 (USD) 1068.60원 (-3.00)

광주상의 정창선 신임회장 선출

정창선(76·사진) 증흥건설 회장이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다. 광주상의는 또 이날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부회장으로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김흥균 남선석유 회장, 김현철 금호출판스 대표이사, 임철수 한성 회장, 송중욱 광주은행 회장, 조억현 KBC 사장, 김용구 현대하이텍 대표이사, 김보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장 등이 선출됐다. 감사로는 최갑렬 삼일건설 회장, 전행관 세동경영컨설팅 대표가 선출됐고 상근부회장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안민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최중만 씨가 임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상의는 20일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상의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을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 상의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정 회장은 취임 인사로 “지역경제발전과 상공인 권익 신장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겠다”면서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연구소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지역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도 ‘롱 아이언’ 쉽게 쳐요

DX-GOLF, DX109·DX111 골프클럽 출시

골퍼들 사이에서 ‘도깨비 드라이버’로 알려진 DX-GOLF가 길이·헤드 크기가 같으면서도 비거리 차이를 둔 아이언 DX109(연철 단조), DX111(정밀주조) 골프클럽을 출시했다.



새로운 골프클럽은 ‘롱 아이언도 쉽게 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으로,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8번 아이언까지는 자신감있게 다루면서 롱 아이언에 대해서는 힘이 들어가고 급해져 실수를 유발하는 데 주목했다.

회사측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8번 아이언 길이로 5·6·7번을 만들고 헤드 크기를 모두 같게 하면서도 비거리는 번호별로 10야드씩 차이가 나도록 특수 제작했다. 어드레스를 할 때 볼 위치도 같고 라이각(헤드를 지면에 놓았을 때 지면과 샤프트가 이루는 각도)이 같아 스윙 궤도가 모두 같다는 점에서 8번 아이언을 다루는 것처럼 공을 치면 된다.

회사측은 또 특허를 갖고 만든 팔각그립을 채택했다. 팔각그립은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립 악력 조절을 못해 정상적 스윙궤도를 만들지 못하고 손가락 부상 등을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작은 힘으로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그립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년도 미국 아마US오픈 챔피언과 전미대학골프 챔피언인 디센보는 모든 아이언을 7번 아이언 길이로 세팅해 사용중으로, 샤프트 길이가 비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주은행 호남 과학인재 양성 앞장

국립광주과학관서 후원금 전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9일 오후 북구 첨단과기로에 위치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김선아 국립광주과학관장, 김홍균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장이 참석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의 과학문화 소외지역 어린이 초청 사업과 지역과학인재 양성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지역은행으로서 동참하고자 후원

금을 마련했다”며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소중히 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호남지역의 과학기술 대중화와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과학문화에 흥미를 갖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 매각 철회” 릴레이 파업

22~24일 부분·총파업...민노총도 산은 비판 성명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 철회를 위한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노조와 협의 없이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조건에 ‘무(無)파업’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태 해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일 8시간 부분파

업에 들어가는 한편, 600여명의 노조원이 상경해 청와대, 산업은행 등에서 해외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에도 8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유스퀘어, 양동시장, 금남지하상가 등에서 시민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24일에는 전 조합원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노조는 이날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채권단 입장을 확인한 만큼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의 간담회를 계기로 ‘더블스타 매각 조건에 무쟁의를 포함한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노동계가 반발, ‘사태 해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노총도 즉각 ‘노동기본권까지 팔아

넘긴 산업은행 만행’이라는 성명을 내고 “노조 사전 동의도 없이 ‘파업 미준제’를 선행계약 조건으로 중국 더블스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반노동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일반직 직원 500여명은 21일 광주공장을 방문, 노조와 면담해 파국을 막기 위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oticon PEOPLE FIRST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